

2024 년  
5 월호

# 아카텐가 통신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홋카이도청 국제과에 새로이 부임한 한국인 국제교류원 송민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를 겸해서 저의 출신지와 취미, 앞으로 홋카이도에서 하고 싶은 것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출신지 전주

### ① 한옥마을

저는 한국에 있는 전주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한국의 옛날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가 있는 지역으로 매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옛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한복 이외에도 임금님이 입었던 옷인 곤룡포와 한국 무사 의상까지 다양한 한국 전통 의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매일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접니다!



### ② 비빔밥 하면? ‘전주 비빔밥’

전주는 홋카이도와 마찬가지로 밥이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전주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비빔밥은 밥에 고기나 양념, 다양한 나물 등을 넣어 비벼먹는 음식입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농사가 잘되는 지역으로 신선한 채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취한 신선한 야채로 비빔밥을 만들기 때문에 비빔밥의 맛은 일품! 편의점에 전주 비빔밥 맛 삼각김밥이 있을 정도로 비빔밥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③ 기념품 하면 이것! 풍년제과 초코파이

홋카이도 기념품으로 롯데이 제과나 시로이코이비토가 유명하듯이 전주는 풍년제과라는 가게에서 파는 초코파이가 유명합니다. 풍년제과 초코파이 안에는 크림과 함께 풍년제과 특제 딸기잼이 들어있습니다. 그 딸기잼과 초코가 마트에서 파는 초코파이와는 또 다른 맛을 냅니다. 이외에도 치즈맛, 말차맛, 딸기맛 등 총 7가지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성수기 때의 풍년제과는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잘 팔립니다. 혹시 한국의 전통을 즐겨보고 겨보고 싶은,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 분들은 꼭! 전주에 방문해서 돌아가는 길에 초코파이를 사보는 것은 어떨까요.



◀ 풍년제과 초코파이

## 취미는? 크로스핏!

여러분들은 크로스핏을 아시나요? 크로스핏이란 짐나스틱, 웨이트리프팅, 카дио 이 3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실시하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이 크로스핏은 저의 취미 활동으로, 현재는 삿포로시에 있는 크로스핏에 다니고 있습니다. 삿포로에 와서 놀란 것은 크로스핏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

작하면서 '상당히 힘든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로스핏이 '운동'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크로스핏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실제로 현재 다니고 있는 삿포로시의 크로스핏은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크로스핏보다 멤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삿포로에서 생활하면서 크로스

핏이 가지는 한일간 차이를 몸소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차이를 발신하여 크로스핏의 매력을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앞으로 홋카이도에서 하고 싶은 것

## ① 골든카무이 성지순례 겸 홋카이도 일주

홋카이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만화 골든 카무이! 실은 저 골든 카무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가을 사이에는 삿포로시에 있는 개척 마을, 홋카이도 박물관을 시작으로 아바시리 감옥이나 하코다테에 있는 고료카쿠 등 골든 카무이의 성지를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역시 홋카이도 하면 눈과 풍부한 자연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반드시 아바시리에서 유빙열차를 타고 시레토코까지 가 한국에 선 볼 수 없는 유빙과 드넓게 펼쳐지는 새하얀 경치를 제 눈에 담고 싶습니다.

## ② 역도대회 출전

한국에서 크로스핏을 다닐 때 역도 대회에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도 대회 일정과 출국 날짜가 겹쳐서 대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못 나갔으면 일본에서 나가면 된다! 라고 생각해 삿포로시에서도 크로스핏을 계속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역도대회에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앞으로 홋카이도청 소속 국제교류원, 홋카이도와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활동해 나가는 가운데 제 목표는 한일 서로 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 차원의 연대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 한일관계나 한일 역사인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대학에서는 복수전공으로 외교학을 공부하면서 한일교류회와 같은 한일에 관한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교류, 한국강좌 등을 통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문화)과 그 특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상대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아카렌가 통신, 한국 강좌, 그리고 한국 관련 이벤트 기획 등을 통해 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앞으로의 우호적인 한일 관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 赤れんが通信  
バックナンバーは  
こちら



✓ 北海道庁  
国際課  
FACEBOOK



✓ 編集者・発行先 総合政策部 国際局 国際課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 +81-11-204-5091 FAX : +81-11-232-4303